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승객이 믿을데라곤 선장뿐인 것을”

전생에도 '관공부' 하셨나요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인공에 관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스님께서 전생에도 그와같은 방법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셨습니까?

이 육신과 정신체는 저 나무의 싹과 뿌리가 하나로 이어져 꽃이 피는 것 같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어떻게 이 공부를 했느냐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 정맥과 동맥이 이어져 돌아가듯이 육신과 정신체가 돌아다니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 그렇게 힘이 됩니까, 들어보세요. 싹은 무조건 자기 뿌리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이 또는 줄기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런다면 뿌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뿌리가 있음으로써 싹이나 줄기도 상상하게 자랄 수 있는 건데 공연히 줄기나 싹이 바람 분다고 걱정, 비 온다고 걱정한다면 우습지 않습니까?

나무가 상상하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뿌리의 능력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힘이 든다는 게 뭐니까? 나무에 이파리가 많듯이 몸 안에 생명체들이 많아서 그 생명체들이 제각기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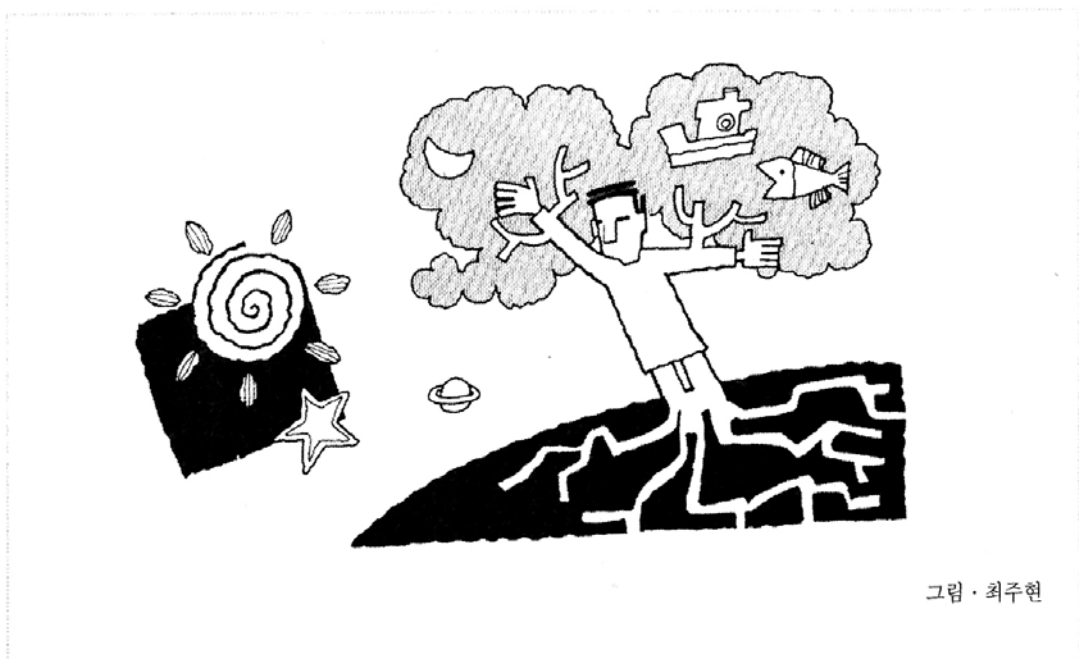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의 선장인 제 뿌리한테

모든것을 일임해야지

이론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접을 믿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부면서 돌아가게 하는 그 자체를 터득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떻게 수행했느냐 하는 그 방법은 벌써 지나간 방법입니다. 고로 지나갔으니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은 전생으로부터 이 세상에 출현키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것입니다. 그렇게 잔뜩 짊어지고 나온 것이 인연에 따라 현실로 풀려 나오고 작용을 하는데 그걸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를 모른다던 그건 바로 3층 집을 지을 때 1층은 안짓고 2층 3층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부터 알아야지 나를 모르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으며 내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공부가 너무 힘이 듭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쭙어 보는 일도 실은 자이부처를 믿어주시고 왜 스님께 여쭙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망설여 집니다. 가르침을 바랍니다.

음이 내게 하는데 그 마음의 선장인 제 뿌리한테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거기서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말로 이론으로 해도 그건 공론이 되어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의식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다스려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내가 지금 보는 이 육신이나 또는 이론적인 말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늘 얘기해 드리지만 모든 생명들의 의식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걸 마음의 선장한테 일임해야 하는데 마음의 선장만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위로 마음의 선장을 모시고 아래로는 모든 생명과식들을 거느리고 사는 집합소이자 심부름꾼, 관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하나라도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공생이다, 공용하고 공식하고 공체다, 그러나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했노라고 하겠느냐, 나 혼자 살고 내가 제일이고 나 혼자 먹었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공생이고 주인공이다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합쳐서 다스리며 돌아가는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뿌리다, 그러니 뿌리만 믿고 거기다 맡기면 거기서

“나를 모르면 1층 안짓고 2, 3층 건물 짓는 것” “겪고 실천하다보면 둘이 아닌 도리 알게돼요”

다 다스릴 텐데 관리인, 심부름꾼이 왜 걱정이고 답답하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종이 주인을 못믿고 걱정한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한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마음 속에서 해결하라 하고 일임해 버리는 겁니다. 안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시원한 것, 답답한 것이 다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너 아니더냐' 하고 내던지면 될 것을 왜 붙들고 늘어지나요.

그건 배에 올라 탄 승객들이 선장을 믿지 않고 선장에게 맡기지 않고 이리 가게 좋다, 저리 가게 좋다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다가는 배가 뒤집힐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습니다. 먼저 기초

부터 다지고 주춧돌을 놓고 아래층부터 지어 올라가야지요. 그러니까 내 선장한테 모든 걸 일임하고 체험을 해나가라,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문자·관념을 버리란 뜻은...

부처님께 착을 두면 부처에 빠지고 열반에 착을 두면 열반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것을 무심경지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또 문자와 관념을 버리라는 말씀도 있고 모든 법이 인연이라 생기는 것이니 공과 유가 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물속에 달이 있는데 있다고 해야 맞습니까, 없다고 해야 맞습니까? 제일 궁금한 것은 시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살이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라는게 분명

한데 말씀입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모든 건 다 태에서 보아야 알고 들어야 알 둘이 이 공부도 겪어봐야,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들 견성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또한 다가가 아니지요. 아이를 낳기는 낳았되 어른이 되도록 길러야 하듯이 몇 년이 걸린 간에 하나하나 자꾸 체험을 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탄생하기 전에 놓고 들어가듯이 또 놓고 들어가고 또 놓고 들어가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하지요. 그걸 알게되면 그 때는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둘 아닌 도리를 알아도 풀 아니게 나눌 수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빠지 않고 만물만생에게 응해 줄 수 있는 자유자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한다면 돼지 속에 들어

가 돼지가 되어 주고 수많은 보살로 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광대무변한 법을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는 눈도 뜨지 못했는데 얘기만 들었다고, 가로 세로로 꿰고 있다 해도 진실되게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 한 컵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없고 무공무진으로 이론을 아는 것도 필요없다, 먼저 나를 발견하고 어른으로 키워서 또 늙어야 된다, 그러면 생사도 없다 생사에 떠달리지도 않는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말을 보고 들어서 그게 뭐가 하고 틀고 앉을게 아니라 행주좌와 그대로 믿고 가라, 왜냐 하면 지금 당장 고통이 오고 병고 오는데 오는데로 믿고나가 타파해야지 언제 틀고 앉았느냐는 말씀입니다.

문자 언어를 버려라 하는 것도 방편이 자 현실이고 현실이자 방편이다, 그게 이론의 방편이 아니라 방편이 방편이다 이겁니다.

물속에 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할테고 아는 사람은 있다고 할테고..., 있다 없다가 떠나서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형상인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일체 만물을 다 응시하시고 비추시고 통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저 부처님이 계시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저 부처님이 안계시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이걸 아예 물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깨우친 사람들끼리 알아들어서 탁 받아 넘기겠지요.

또 시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이 마음이 시사때때로 변화하고 바뀌고 그러는데 그거 시간을 재서 말합니까? 아니 어떤 사람만 날 때에 시간이 몇 시인가 하고 재어보고 저 사람 만날때 재고 그러는가요?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 자넨가?' 하고 식구를 만나면 '아, 여보 어찌 저찌?' 하는데 그건 시간 썰 것도 따질 것도 없죠. 그냥 초월된 상태지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게 그대로, 그 자체가 그대로 초월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대로인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렇다, 아니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년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년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48)

어떤 약 처방보다도 뛰어난 처방전.

“중생은 본래 성품인 주인공에 근거해서 존재한다. 비유하자면 나무가 땅속의 뿌리를 근거로 삼는 것과 같다.

뿌리는 나무가 존재하게 되는 근본이라고로부터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가 나왔듯이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활동 나의 모든 공덕이 그 주인공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게 없다.

지금 이 육신을 끌고 가는 것은 주인공이다. 인간의 뿌리는 체(體)가 없어 보이지 않으나 나를 형성시킨 것도, 이끌고 가는 것도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그러므로 자기 육신이라는 배에다가 몸 속의 수많은 중생들을 싣고 다니는 선장과 같다.”

나무는 뿌리의 힘으로 산다. 그 힘이 줄기, 가지, 잎, 꽃, 열매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뿌리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나무는 시들고 만다. 제대로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마침내는 고목이 되어 썩고 만다.

고로 뿌리는 나무라는 생명체의 근본이다. 사람에게도 그런 뿌리가 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생명의 원천이 있다. 그 원천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우주를 낳았고 나를 낳았고 일체만물을 탄생

케 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원천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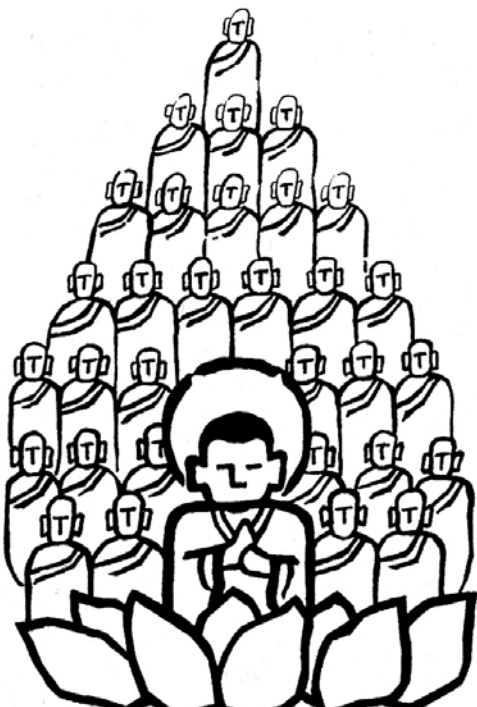
한 생명체가 싱싱하고 활달하게 살아가려면 생명나무의 뿌리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생명체는 나무가 시드는 것처럼 활력을 잃게 되고 병에 시달리게 된다. 육신의 병 정신의 병이 다 거기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밝고 건강하게,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생명의 원천과 바로 맞닿을 수 있어야 한다.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듯이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생명의 에너지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언제나 넘쳐 흐를 뿐 아니라 퍼내어도 퍼내어도 줄지 않는다.

많이 쓰고 싶으면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다. 말하자면 원하는대로 공급을 해준다. 따라서 그 생명의 원천과 맞닿을 수만 있으면 마치 수로를 열어놓은 것처럼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그 점을 믿지 않는다. 원천에 가 닿는 노력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흐르는 생명의 샘을 믿지 않는다. 또는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뿌리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생명체와 그 원천을 이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은 비유하자면 마치 저 마부와 같아서 말과 수레를 이어주며 말을 부리듯이 육체와 생명의 원천을 이어주고 부린다. 중요한 것은 마부가 말을 믿듯이 원천의 힘을 믿느냐에 있다. 믿지 않고서는 샘 솟는 에너지에 맞닿을 수도 없고 끌어다 쓸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고로 마음먹기에 따라 생명체는 에너지로 충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한 생명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려면 저 싱싱하고 푸른 나무처럼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내 생명의 원천인 뿌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마음이 매개자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낮잠에 빠진 마부와 같다. 마부가 잠들어 있는 한 말이 저 혼자 수

레를 이끌지 않는다. 마부가 말이 한가롭게 풀이나 뜯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모습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육신은 소우주에 비유된다. 수많은 생명체가 우글거리는 중생의 국토와 같다고도 한다. 거기서 임금노릇을 하는 것은 마음이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은 바로 임금인 마음이 할 말이다. 임금이 바르게 다스리면 나라가 편안하고 바르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듯이 마음쓰기에 따라 중생의 국토인 우리의 육신도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병고에 시달린다.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임금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 가장 바르게 다스리는 길은 내 생명의 원천을 믿고 거기에 맞닿음으로써 항상 넘쳐흐르는 생명에너지를 공급받는 길이다.

그것은 믿음에 있다. 나무가 뿌리를 믿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의 믿음, 그것은 어떤 처방보다도 뛰어난 처방인 것이다.

협찬 : 소적새마을 김광준